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찬

서 정 민(연세대학교 교수)

김홍수 교수의 발제 “기독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현재 한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독교계 박물관이나 역사 자료 소장처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대학부설, 교회부설, 사설, 곧 설치 주체의 분류라는 하나의 타당한 구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고, 또한 각 박물관이나 자료 소장처 별로 살필 수 있는 전시물과 자료의 ‘콘텐츠’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하게 거론할 수 있는 기독교 박물관의 조성 경위나 목표 등을 소개해 줌으로써 현황 파악과 함께 그 역사와 과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

아무튼 가톨릭 220년, 개신교 120년 정도의 일천한 역사를 지닌 한국기독교사의 바탕에서, 더구나 그 역사가 수난과 격동으로 점철되고 생존의 위기가 지속된 점으로 미루어 자료의 수집과 정리라는 박물관적 기능 자체가 가동되기 어려웠던 점도 여기에서 새삼 상기할 수 있다.

이런 터에 김홍수 교수의 발제를 통해 단편적이던 기독교 박물관의 정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다행히 여긴다.

다만 여기에서 논찬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범 기독교박물관으로서 지목할 수 있는 기관과 자료 소장처를 특별한 순서 없이 좀더 보충 나열하고, 이어 몇 가지 그 과제를 진전시켜 논의하고자 할 따름이다.

대학과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 박물관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는 본 논찬자가 몸담고 있고, 최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접 주도한 연세대학교의 현황을 들어 우선 보충하고자 한다. 연세대학교는 주지하는바 광혜원(제중원) 전승의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연희대학의 두 전통이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에 현재 의과대학 부설로 ‘동은의학박물관’이 있다. 여기에는 한국근대의료사의 대강, 특히 알렌 선교사에 의한 광혜원 설립과 예비슨에 의한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학교의 역사 자료가 정리되어 의사(醫史)는 물론 한국 기독교 선교사의 시초와 관계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이 ‘동은의학박물관’ 이외에도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 복원되어 있는 ‘광혜원’은 그 소장 자료만 아니라 그 복원건물 자체가 한국선교의 박물관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부설되어 있는 설립사 관련 전시물, 중앙도서관 귀

중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초기 선교와 전래 관련 자료, 한국 최초의 교회사가인 백낙준 컬렉션 등은 그 자체로서 기독교 박물관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2003년 10월 28일 연세대학교 내에는, 논찬자가 책임자가 되어 조성한 ‘언더우드기념관’이 설치되었다. 이는 옛 언더우드 2세의 고택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표적 선교사 가문의 생활사를 재현하였다. 유물 전시개념의 박물관이나 기념관 보다는 당시의 생활 상황 재현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어 실내를 꾸미고 고 사진, 도서, 유물을 디스플레이 하였는데, 나름대로 선교사 박물관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헌자료소장과 연구를 겸한 언더우드연구소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교회부설 박물관이나 자료실로는 최근에 문을 연 한국최초의 조직교회 새문안교회의 역사자료실, 정동감리교회의 역사자료실 등을 보충하여야 하는데, 주로 초기의 문서와 사진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특수한 역사의 현장성이 있으나, ‘제암리교회의 순교기념관’은 3.1운동과 한국기독교의 관련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장소이자, 자료전시관이 되고 있다. 한편 자료소장의 범주에서 보면, 수서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윤경로)의 자료실, 마포 성산동 사단법인 한국교회사학연구원(원장 민경배)의 자료실, 은평 불광동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원장 심한보)의 자료 등도 주목해 보아야 할 한국기독교사 자료 소장처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독교 역사자료의 소장이나 전시기능을 갖춘 곳으로는 종로 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여수 애양원과 애양원교회의 전시실, 제주도 성안교회 전시실, 그 밖에도 각 지역의 모교회들이 간혹 조성하고 있는 자료실은 나름대로 박물관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의 근대민족운동과 기독교가 관련된 주제의 전시물이나 자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나, 도산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주기철 등 기독교 역사 인물의 컬렉션이나 기념관 등도 범 기독교박물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김홍수 교수가 제시한 기독교 박물관의 과제는 전적으로 공감되는 터이다. 특히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위한 원천적 에너지로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성숙한 의식은 제일의 요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체계적 관심과 지원, 특히 한국 근대사와 근대문화사의 한 축으로서 기독교의 의의와 공헌을 발견하는 정부나 공공 기관의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다. 불교나 유교 등의 역사자료가 민족사 전체의 찬란한 유산이라면, 기독교의 역사자료는 한국의 근대화, 한국 근현대의 전환기 정신사적 문명사적 자료로서 상정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